

## 남과 북 공통 표기법의 조건

연규동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945년 독립을 이루었음에도 1948년 남과 북에서 각각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남북의 어문 규범은 언어와 더불어 서로 다르게 변해 왔다.

이러한 남북의 어문 규범 차이는 남북 언어 차이와 함께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 왔으며, 언젠가 맞이하게 될 남과 북의 재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그 통합 방안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남북의 어문 규범 중 특히 맞춤법의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가 기반을 두고 있는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공통 표기법이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논하기로 한다.

## 1. 남북 어문 규범의 종류

현재 남에서 사용되는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네 가지이며, 북에서는 〈조선말규범집〉, 〈외국말적기법〉, 〈로마자표기법〉의 세 가지 어문 규범이 제정되어 있다.

남과 북에서 사용하는 어문 규범은 구성 차이만 있을 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즉, 남에서는 〈한글 맞춤법〉 안에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북에서는 〈조선말규범집〉에 ‘맞춤법’과 별도로 ‘띄어쓰기’, ‘문장부호법’을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에서는 〈표준어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반면, 북측에서는 문화어 규범을 따로 정하지 않고 〈조선말규범집〉 안에 ‘문화어발음법’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도 구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남북 어문 규범의 종류

남		북	
한글 맞춤법	제1, 2, 3, 4, 6장 맞춤법	조선말규범집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띄어쓰기
	(부록) 문장 부호		문장부호법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문화어발음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	
외래어 표기법		외국말적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표기법	

## 2. 남북 표기법의 역사

### 2.1. 함께 쓰던 시기

남과 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기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출발한다. 이 표기법은 제정 이후 1937년의 고친판, 1940년의 개정판, 1946년 일부 개정판 등 조금씩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기 이전의 문자 생활의 준거가 되었다.

### 2.2. 달라진 시기

남과 북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던 표기 규범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48년 북에서 제정한 <조선어신철자법>부터이다(1950년 간행). 이 표기법은 일부 문헌에 반영되기는 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어 실제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표기법이 이후 발표된 북의 다른 표기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변화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조선어신철자법>에서 새로 적용된 규정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되면서 남북 표기법에서 중요한 차이를 낳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단일 자모 외에 겹자모를 정식 자모로서 인정(1항)
- 자모 명칭을 ‘| \_’ 방식으로 통일(2항)
- 이른바 절음부(絶音符, ‘ ’)를 이용한 사이시옷 표기(31항)
- 한자음 ‘매, 폐’를 ‘메, 페’로 표기(37항)
- 두음법칙 폐지(42, 43항)
- 어간의 모음이 ‘ㅣ, ㅑ, ㅓ, ㅕ, ㅗ, ㅛ’인 경우 어미 ‘-어, -았’을 ‘-여, -였’으로 표기(56항)

특히 절음부를 이용하여 합성어의 음운 교체를 표기한 시도는 이후 <조선어철자법>(1954)에서 이름만 ‘사이표’로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다가 <조선말규범집>(1966) 이후 사이표가 전적으로 폐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손’등, 코’날, 치’과, 관’질’염’과 같은 표기가 시각적으로 익숙해지면 여기에서 절음부를 생략하더라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 북한 표기 규범에서 사이시옷 표기를 없앨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절음부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북에서 실제로 널리 사용된 표기법은 1954년 제정된 <조선어철자법>이다. 이 표기법에서 규정된 이후 남과 북에서 달라진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자모의 종류를 40개로 확정(1항)
- ㅍ, ㅌ 등의 명칭의 접두사를 ‘된.’으로 바꿈(1항)

이어 1966년에 발표한 <조선말규범집>은 북 표기 규범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 표기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18항), 이후 남과 북에서 사이시옷 표기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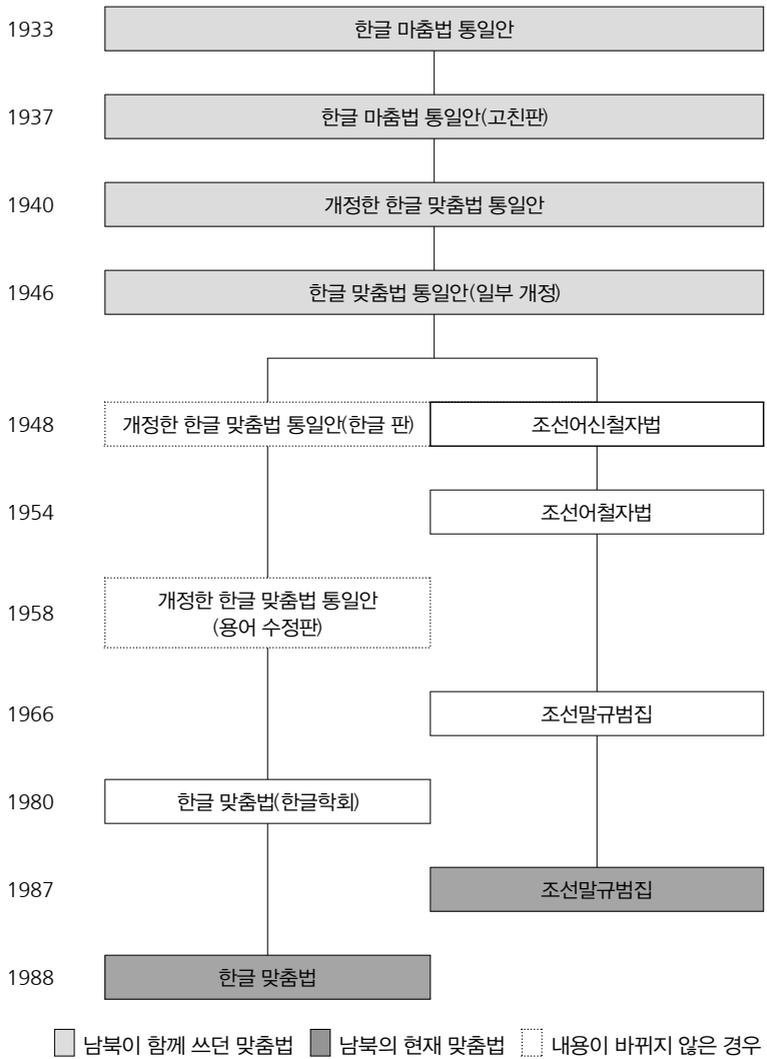
남의 맞춤법은 조선어학회의 후신인 한글학회에서 1980년 <한글 맞춤법>이라는 이름으로 새 표기법을 발표함으로써 변화를 겪는다. 이 표기법에서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후 문자 생활이 정착되면서 현실 언어와는 맞지 않는 규정이나 완전히 일반화된 내용은 삭제하였기 때문에 이전 맞춤법에 비해 많이 간소해졌다. 또한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통일안’이라는 단어를 빼 버렸다. 사실 그 이전에도 남에서는 1948년과 1958년에 새로운 안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이미 사

용되던 1946년도 표기법을 한글로 바꾸거나, 당시 새로 제정된 문법 용어 등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 2.3. 현재 안의 성립

남과 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표기 규범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되었다. 북에서는 기존 <조선말규범집>의 일부 조항과 내용들을 새로 개정한 <조선말규범집>을 1987년 공포했으며(1988년 간행), 남에서는 1988년 정부 차원에서 공포된 최초의 표기 규범으로서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었다(1989년 시행). 특히 <한글 맞춤법>은 국가 차원에서 어문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이전까지 사용되어 오던 표기법이 조선어학회 또는 한글학회가 민간단체의 자격으로 이끌어 온 것이라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8년 남과 북이 갈라진 후 남에서는 두 종류의 새로운 표기법이, 북에서는 네 종류의 새로운 표기법이 독자적인 개정을 거치면서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표기법은 조금씩 차이가 벌어졌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구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얇은 음영으로 된 부분(□)은 남북이 함께 쓰던 맞춤법이며, 짙은 음영으로 된 부분(■)은 남북에서 현재 사용되는 맞춤법이다. 한편 전혀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점선으로 둘러싸 표시하였다(□).



[그림 1] 남북 표기법의 역사

### 3. 남북 표기법의 총칙

남북의 말과 글에 대한 비교 작업은 1971년 남북 회담 이후 제한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88년 당시 북방 외교 정책 아래 북의 문헌이 개방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남북의 표기 규범 관련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논의의 거의 대부분은 남북 맞춤법의 차이를 소개하고 그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제시된 대안들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조항에 따라 남북 어느 한쪽의 규정을 받아들여든지 아니면 남북의 표기를 둘 다 인정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의 여러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남북이 앞으로 어떤 규범을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원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3.1. '소리대로'의 본질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좀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남과 북의 표기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총칙이다.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남〉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북〉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맞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논의들에서는 남북의 총칙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남

의 ‘소리대로’는 북의 ‘소리나는대로’와 대응이 되어 이른바 음소주의를 표상하고, 남의 ‘어법에 맞도록’은 북의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과 대응이 되어 이른바 형태주의를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표 2] 남북 표기법의 총칙 비교

남	북	내용
소리대로	소리나는대로	음소주의
어법에 맞도록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	형태주의

하지만 남쪽의 ‘어법에 맞도록’ 및 북쪽의 대응 구절을 형태주의에 해당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남의 ‘소리대로’는 북의 ‘소리나는대로’와는 전혀 다르며 또한 ‘~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소리대로’에는 1933년 맞춤법을 새로 제정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즉, ‘소리대로’라는 표현에 담긴 뜻은 표기법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당시에 ‘아침, 어깨, 빨래, 나비 / 기차, 여자, 노인, 천지’와 같은 단어를 각각 ‘아츨, 엇개, 빨내, 나뵤 / 기차, 녀즈, 로인, 텃디’와 같은 역사적 표기법으로 적지 말고 실제 발음에 따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츨이라는 소리는 ‘ㅌ’이라고 적지 않고 ‘츠’이라고 적는다. [나이라는 소리는 ‘ㄴ’이라고 적지 말고 ‘ㄴ’로 적는다.”와 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의 ‘소리대로’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옛날 표기를 사용하지 말고) 실제 말하는 소리대로’ 적으라는 것이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한글 자모의 음가대로’ 적는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실제 말하는 소리대로” 또는 “한글 자모의 음가대로”와 같은

‘소리대로’의 원리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자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적는 한글이 표음문자라는 사실에 이 같은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자 생활이 대중화되어 표기법이 정착된 이후에는 ‘아침, 어깨, 빨래, 나비; 기차, 여자, 노인, 천지’와 같은 표기가 이미 그 자체로 역사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조선어신철자법>의 총론에서 ‘소리대로’를 배제하고, <조선어철자법>에서 ‘소리에 관한 것’이라는 장을 아예 없애 버린 것도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다.

### 3.2. ‘어법에 맞도록’의 기능

소리와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한다면 표기법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이상일 뿐이며, 어떤 언어를 100% 소리대로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란 존재하기 어렵다. 특히 교착어인 한국어처럼 각 형태소가 교착되는 과정에서 소리의 교체가 심하게 일어나는 언어는 소리대로 표기하게 되면 형태소의 형태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읽기의 효율성’이 크게 제약받는다.

따라서 형태소가 위치에 따라 발음이 바뀌더라도 언제나 일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남의 ‘어법에 맞도록’과 북의 대응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법에 맞도록’을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남과 북의 총칙은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를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형태소 ‘닭, 떡, -고’가 환경에 따라 각각 [다, 명, -꼬]로 발음되더라도 언제나 일관되게 그 원형을 밝혀 적으므로 ‘닭, 떡, -고’에는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만 적용되며, ‘별, 보-, -니’ 등과 같이 발음이 일정한 형태

소는 이와는 달리 ‘소리대로’의 원리만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하지만 이 두 종류의 형태소 모두 기본적으로는 “실제 말하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점에서 ‘소리대로’의 원리를 따르며, 또 언제나 위치에 따라 발음이 바뀌더라도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점에서 ‘어법에 맞도록’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를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 ‘어법에 맞도록’의 예외

	소리대로	어법에 맞도록	비고
닭	닭 (닭이)	닭 ([데] 닭)	
먹	먹 (먹고)	먹 ([명] 먹는다)	
-고	고 (오고)	고 ([꼬] 먹고)	
별	별	별	교체 없음
보	보	보	교체 없음
-니	니 (어디 가니)	니	교체 없음

### 3.3. ‘어법에 맞도록’의 예외

하나의 형태소는 그 발음이 변하더라도 늘 일관되게 적겠다는 ‘어법에 맞도록’에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사, 어미가 앞에 오는 형태소의 끝소리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조사와 어미들, 예를 들면 ‘-을/를, -니/으니’와 같은 것들로 비록 하나의 형태소이기는 하지만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발음에 따라 구별하여 적기로 약속된다. 만약에 이들을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면, ‘장기를/바둑을; 가니/먹으니’가 아니라, ‘장기를/바둑를; 가니/먹니’ 또는 ‘장기을/바둑을; 가으니/먹으니’와 같이 적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 발음에 큰 왜곡을 낳게 된다.

따라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지 않고 실제 발음을 그대로 적어야 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변이 형태가 나타날 경우 그 변이 형태를 그대로 적”어야 하는 경우를 표현한 것이 바로 북의 ‘소리나는대로’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때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더라도 그 표면적 발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 3.4. 요약

이 절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어를 표기하는 도구인 한글이라는 문자가 표음문자이므로 남북 표기법의 대전제는 실제 말하는 대로 한글 자모의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이다(이를 표현한 것이 남의 ‘소리대로’이며, 표기법이 정착된 현대에는 잉여적인 규정이다). 하지만 교착어라는 한국어의 성격에 따라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소리의 교체가 일어나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이를 표현한 것이 남의 ‘어법에 맞도록’과 북의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이다). 하지만 원형을 밝힐 때 현실 발음이 심하게 왜곡되면 원형이 아닌 변이 형태를 발음대로 적는다(이를 표현한 것이 북의 ‘소리나는대로’이며, 남의 ‘소리대로’와는 다른 원리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표기하는 원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법에 맞도록’이며, 단서 조항으로 ‘소리나는대로’가 덧붙을 수 있다(북의 총칙에 표현된 ‘관습을 따르는 것’도 한국어를 적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는 원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예외 조항이므로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남의 총칙에 사용된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구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표현이므로,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원형을 밝

히어'로 쓰기로 한다. 또한 북의 총칙에 등장하는 '소리나는대로' 역시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남북의 표기법을 비교하는 자리에서는 '소리대로'라는 표현과 혼동되기도 쉽고 오해하기도 쉬우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쓰기로 한다.

## 4. 남북 표기법의 실제

이상에서 정리한 두 가지 원리 즉, '원형을 밝히어'와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에 따라 남북 표기법에서 차이가 나는 몇 가지 규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4.1. 두음법칙

'남녀/녀성, 경로/노인'과 같이 ㄴ, ㄹ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어느 위치에 오든 일관되게 표기하는 것은, 하나의 형태소는 하나의 고정된 형식으로 적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원형을 밝히어'를 따르는 것이다. 이 같은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글로 표기할 때 생기는 많은 동음이의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양산(陽傘)/량산(量産), 이론(異論)/리론(理論),  
역학(易學)/력학(力學), 노력(努力)/로력(勞力)

하지만 남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ㄴ, ㄹ이 소리 나지 않는 두음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현실 발음과 크게 어긋나게 되므로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 적게 된다. 만약 실제 발음인 [여자, 노인]과는 상

관없이 원형을 밝혀서 ‘녀자, 로인’으로 표기한다면, 이 표기에 따라 발음이 바뀌는 이른바 철자 발음(spelling pronunciation)이 발생하여 실제 언어 현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다만, 성씨 ‘柳’를 ‘류’로 적거나 유음이 두음으로 오는 외래어를 어려움 없이 발음하는 등, 현대에 와서 남쪽에서 두음법칙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앞으로 두음법칙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게다가 두음법칙 표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글 코드에서 하나의 한자가 두 개의 음에 중복 할당된 것은 전산화 과정에 크게 장애를 낳으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 4.2. 사이시옷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도 남북의 표기 규범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차이 가운데 하나이며 ‘원형을 밝히어’의 원리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북의 표기법은 형태소의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발음이 변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시내가, 깨잎’과 같이 ‘원형을 밝히어’의 원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표기하고 있다. 반면, 남에서는 두음법칙과 마찬가지로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의 원리를 받아들여 발음의 교체를 반영하는 표기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냇가, 깻잎’과 같은 표기에는 [시내까, 깻넙]과 같이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이 첨가된다는 사실이 사이시옷에 의해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시내, 깻’이 각각 ‘시냇, 깻’으로 바뀌므로 원형은 유지되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표기하면 [시내가, 깨잎]과 같이 인위적인 발음이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이시옷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동음이의어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도 있다(예: 새별/셋별, 비바람/빗바람). 게다가

‘좁쌀, 살코기’와 같은 합성어에서 ㅂ과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원형을 밝히지 않고 변이 형태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사이시옷을 써 온 이유가 바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려는 의식 때문이다.

하지만 ‘원형을 밝히어’의 원리는 끊임없이 사이시옷 표기를 위협한다. 남에서 여섯 개의 한자어를 제외한 모든 한자어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어떤 식으로든 원래 형태를 유지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또한 최근 언중이 ‘최댓값, 갯과, 까치고갯길’과 같은 표기에 부담을 느끼는 까닭도 원형이 깨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시옷 표기는 ‘원형을 밝히어’와 이에 대응하는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가 첨예하게 대척하는 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의 <조선어신철자법>과 <조선어철자법>에서 시도된 절음부 또는 사이표 ‘ ’는 ‘원형을 밝히어’와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를 둘 다 만족시키는 방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시내가, 깨잎, 최대값, 개과, 까치고개길’에서 볼 수 있듯이 원형을 잘 보여 주면서도 바뀐 발음이 있음을 사이표가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의 최대 난점은 전혀 낯선 부호를 한글 자모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에서 결국 폐지된 것도 이 같은 생경함을 해결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표의 대안으로 1940년 <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30항에서 시도되어 1946년까지 사용된 바 있는 ‘시내ㅅ가, 깨ㅅ잎, 최대ㅅ값, 개ㅅ과, 까치고개ㅅ길’과 같은 표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같은 표기는 한글의 날자모를 독립적으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어색하기는 하다. 그러나 사이시옷 표기를 날글자로 표기한 <<훈민정음>> 표기와도 이어질 수 있으며,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도 ‘가ㅎ다’와 같은 표기를 허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

### 4.3. 어미

남북이 다르게 표기하는 일부 어미들도 대부분 ‘원형을 밝히어’와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의 두 원리의 차이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본다.

어미 ‘-어/여, -었/였’의 경우, ‘치어, 개어, 되었다, -시어’와 같은 남의 표기는 ‘원형을 밝히어’를 따르는 것이며, ‘치여, 개여, 되었다, -시여’와 같은 북의 표기는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를 따르는 것이다. 다만, ‘ㄹ’과 관련 있는 의문 어미를 된소리로 표기할 것인가에 관련된 표기에서 북의 표기인 ‘-르가, -르고, -르소냐’ 등은 원형을 밝힌 것이며, 남의 표기인 ‘-르까, -르꼬, -르쏘냐’ 등은 변이 형태의 발음을 따른 것이다.

### 4.4. 접미사

‘래’으로 끝나는 어근에 붙는 접미사의 경우, ‘넓다랗다, 얇다랗다’와 같은 북의 표기는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고, ‘널따랗다, 얇따랗다’와 같은 남의 표기는 ‘변이 형태의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거리다’가 붙은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를 ‘원형을 밝히어’를 따라 표기하면 ‘살살이, 싹싹이’와 같은 남의 표기가 되지만, 그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살사리, 싹쌌기’와 같은 북의 표기가 된다.

### 4.5. 자모

한글 자모와 관련된 남북의 차이는 한글 자모의 모양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소리 값을 우선할 것인가에 따른 것이다. 아래에 이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남의 표기법에서처럼 모양에 따라 자모를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모든 문자는 외적 형상이 직관적으로 인지된다는 보편성에 들어맞는다. 예를 들어 ‘시, ㅅ’는 문자론적으로

각각 ‘ㅅ’과 ‘ㄱ’ 또는 ‘ㄴ’와 ‘ㅣ’의 결합으로 이해된다. 둘째, 모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언어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ㅅ’, ‘ㄱ’가 시대에 따라 그 발음이 바뀌더라도 그 명칭이나 배열 순서는 바뀔 필요가 없다. 영어에서도 ‘honest, night’ 등과 같은 단어들의 발음은 크게 바뀌었지만 모양을 따라 명칭과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늘 일정하게 배열된다. 특히 이처럼 시대에 따라 발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른바 ‘문자의 편견’을 깨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일관성은 쉽게 이해된다. 셋째,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래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기본 자모만이 언급되어 왔으며 그 결과 한글 자모가 24개라는 사실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상식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갖는다.

북과 같이 소리에 따라 자모를 분류하고 배열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적이라는 것이다. 즉, ‘ㄱ’, ‘ㄱ’ 등을 독자적인 자모로 설정하게 되면, 이들이 우리말에서 독립적인 음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별도의 교육을 하지 않아도 명료하게 드러난다. 특히 ‘ㅇ’이 음가가 있는 종성으로 사용될 때에는 ‘ㅅ’과 ‘ㅅ’ 사이에 배열하고, ‘ㅇ’이 음가가 없는 초성으로 사용될 때에는 자음 배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만을 따로 모아 놓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ㅇ’이 가진 두 가지 성질을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모국어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 5. 남북 표기법의 통합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로 남과 북의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원형을 밝히어’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변이 형태의 발음 대로’에 따른 표기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표기법의 통합을 위해 우리가 바꾸어야 할 인식과 공동체 또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다.

### 5.1. 인식의 변화

첫째, 남북의 표기 규범의 차이가 그렇게 현저한 것은 아니다. 흔히 차이점만을 강조하다 보면 공통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남과 북의 표기법은 동일한 맞춤법에서 출발하였기에 매우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다. 남북의 표기법에 대해서 한때 이질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표현은 아주 과장된 것이다.

62쪽의 글은 북의 언론에 실린 기사를 인용한 남쪽 언론의 기사이다. 남북의 다른 표기들이 실제 문자 생활에서 표기법의 전제인 ‘읽기의 효율성’에 크게 장애를 주지 않음을 보여 준다. 띄어쓰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남과 북의 표기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이와 같은 남북의 표기 차이를 ‘이질화’가 아니라 ‘다양화’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표기의 다름은 오히려 문자 생활에서 문체적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마치 한 언어권 내 구성원들의 방언이 다르다고 해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뿐더러 개인 차원에서 언어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의 표기 차이가 “단일한 언어를 표현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9호 [부제 제21455호] 주제 94 (2005)년 11월 25일 (금요일)

## 평양-남포통일마라손대회 진행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북과 남의 마라손애호가들의 참가밑에 평양-남포통일마라손대회가 24일에 진행되었다. 통일마라손대회개막식이 청춘거리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있었다.

개막식에는 박경철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체육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가 인솔하는 남측참가자들이 개막식

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이번 통일마라손대회가 혈육의 정을 나누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조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민족의 굳센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기시작을 알리는 신호총소리가 울리자 북과 남의 남, 녀 마라손선수들이 경기장을 출발

하였다. 주루에 나선 북과 남의 선수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야말 일념을 안고 광복거리를 지나 청년영웅도로에 있는 귀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었다.

경기가 끝난 후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 평양-남포통일마라손대회 진행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북과 남의 마라손애호가들의 참가밑에 평양-남포통일마라손대회가 24일에 진행되었다. 통일마라손대회개막식이 청춘거리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있었다.

개막식에는 박경철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체육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가 인솔하는 남측참가자들이 개막식

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이번 통일마라손대회가 혈육의 정을 나누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조국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민족의 굳센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경기시작을 알리는 신호총소리가 울리자 북과 남의 남, 녀 마라손선수들이 경기장을 출발

하였다. 주루에 나선 북과 남의 선수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야말 일념을 안고 광복거리를 지나 청년영웅도로에 있는 귀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었다.

경기가 끝난 후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남의 남, 녀 마라손선수들이 경기장을 출발하였다.

주루에 나선 북과 남의 선수들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야말 일념을 안고 광복거리를 지나 청년영웅도로에 있는 귀환점을 돌아 결승선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리었다.

경기가 끝난 후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오마이뉴스》, 2005. 11. 26.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508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95081))

하면서 서로 다른 표기법을 사용해 일어나는 혼란과 이로 말미암아야  
기되는 민족어 발전에 부정적인 저해 요소”라는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를 방증하는 예로 동일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미국과 영  
국의 표기 차이를 들 수 있다. 아래 예들에서 ‘/’ 앞쪽에 있는 것이 미국  
식 표기이며, 뒤쪽에 있는 것이 영국식 표기이다.

-er/-re	center/centre, fiber/fibre, liter/litre, somber/sombre
-ize/-ise	analyze/analyse, civilize/civilise, organize/organise, realize/realise, recognize/recognise
-ll/-l-	counselor/counsellor, jewelry/jewellery, marvelous/marvellous, modeling/modelling, signaled/signalled, traveler/traveller
-or/-our	behavior/behaviour, color/colour, harbor/harbour, honor/honour, humor/humour, labor/labour, neighbor/neighbour
-se/ - ce	defense/defence, offense/offence, pretense/pretence
-V-/-aV-	airplane/aeroplane, encyclopedia/encyclopaedia, medieval/mediaeval
그 외	ax/axe, catalog/catalogue, check/cheque, gray/grey, pajamas/pyjamas, skeptic/sceptic, tires/tyres, while/whilst

좀 장황하리만큼 예를 길게 든 이유는 남북의 표기 차이 역시 미국과  
영국의 표기 차이와 마찬가지로 단지 문체적 차이일 뿐이며 뜻을 파악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남과 북 어느 한쪽의 표기 규범이 다른 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표기법은 언어학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중의 의식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한 학습의 용이성, 전통과의 일치성 등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가는 그 사회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좋고 나쁨을 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표음문자를 써서 표기하면서도 ‘nite, thru’ 대신에 ‘night, through’를 사용하는 영어의 표기법을 단지 논리적인 면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일이다.

## 5.2. 행동의 변화

첫째, 상대의 표기 규범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떠한 표기법이라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쉽게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의 문자 문화 교류가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남과 북이 자연스레 상대의 표기법을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 표기법 변환기’, ‘남북 어휘 변환기’ 등을 개발하여 문서 편집기나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문자 생활이 전자화된 시대에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또는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두 가지 표기의 문자 매체를 쉽게 생산할 수 있다.

둘째, 남과 북의 표기법을 각각 더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남북의 현행 표기법에 있는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점 등을 대폭 손질하여 더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정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표기법은 표기법 연구와 통합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이므로 모든 대중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을 예상하는 표기법 구상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시대의 의사소통 방식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

게 변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의 언어와 문자 소통 방식은 지금보다 훨씬 덜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종이 사전보다는 전자사전을 이용하는 시대에 한글 자모의 배열 순서는 그저 연구자들만의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책을 물리적으로 배열할 때에도 자모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절대 위치를 전자화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표기 규범이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창운(2000), 남북한 통일 어문규정 시안 마련을 위한 모색, 《한말연구》 6, 한말연구학회, 21~48.
- 김양진(2003),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형태 규범(표기법)을 중심으로, 《남북한 어문규범과 그 통일 방안》, 국학자료원, 83~119.
- 김하수·연구동(2014), 《남과 북의 맞춤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동근(2006), 남북한 맞춤법 통일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겨레어문학》 37, 겨레어문학회, 89~115.
- 박형익 외(2003),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 언어 정보화》,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 연구동(1998), 《통일시대의 한글 맞춤법》, 박이정.
- 연구동(2014), 표기규범과 문자-한자어의 표기 원리, 《한글》 304, 한글학회, 141~176.
- 연구동(2014), 남북의 표기 차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겨레말》 12,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18~21.
- 이희승(1946), 《한글 맞춤법통일안강의》, 동성사.
- 전수태(2001), 서로 다른 표기법의 통일 방안, 《새국어생활》 제11권 제1호, 국립국어원, 47~60.
- 한글학회(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한글학회.